

| 국어는 이감 |

2022학년도 이감 국어 I

제1차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2022학년도 이감 국어L 제1차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
| 1 | ㉓ | 2 | 13 | ㉓ | 2 | 25 | ㉓ | 3 | 37 | ㉒ | 2 |
| 2 | ㉕ | 3 | 14 | ㉒ | 2 | 26 | ㉕ | 2 | 38 | ㉑ | 2 |
| 3 | ㉒ | 2 | 15 | ㉔ | 2 | 27 | ㉒ | 2 | 39 | ㉔ | 2 |
| 4 | ㉑ | 2 | 16 | ㉔ | 2 | 28 | ㉒ | 2 | 40 | ㉑ | 2 |
| 5 | ㉕ | 2 | 17 | ㉒ | 2 | 29 | ㉑ | 2 | 41 | ㉓ | 3 |
| 6 | ㉓ | 2 | 18 | ㉔ | 2 | 30 | ㉕ | 3 | 42 | ㉑ | 2 |
| 7 | ㉔ | 2 | 19 | ㉒ | 2 | 31 | ㉒ | 2 | 43 | ㉑ | 2 |
| 8 | ㉔ | 2 | 20 | ㉕ | 3 | 32 | ㉓ | 2 | 44 | ㉕ | 2 |
| 9 | ㉑ | 3 | 21 | ㉑ | 2 | 33 | ㉔ | 2 | 45 | ㉓ | 3 |
| 10 | ㉕ | 2 | 22 | ㉑ | 2 | 34 | ㉒ | 3 | | | |
| 11 | ㉒ | 2 | 23 | ㉔ | 2 | 35 | ㉒ | 2 | | | |
| 12 | ㉕ | 3 | 24 | ㉔ | 2 | 36 | ㉕ | 3 | | | |

2022학년도 이감 국어 L 제1차 해설

1 [~ 3] 화법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발표에서 '여기 사진을 보실까요?', '얼굴의 왼쪽과 오른쪽의 피부 상태가 다르죠?', '적당량의 태양 빛을 쬐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자외선 조명을 비추니 형광색으로 빛나는 것이 보이시나요?', '어떤 문제일까요?' 등 질문의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청중이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에 적용된 매체 활용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발표에서 도표를 사용하여 자외선이 종류에 따라 신체에 어떤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자외선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대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자외선에 노출된 정도가 달라 얼굴 피부의 왼쪽과 오른쪽의 노화 상태가 다른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여 발표 주제에 관한 청중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② 그래프를 활용하여 자외선의 과장 길이를 가시광선과 X선에 대비하여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그림을 통해 태양 빛에 포함된 자외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종류별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④ 사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자외선 조명을 비췄을 때 형광색으로 빛나는 것을 담은 동영상물 제시하여 자외선의 활용 분야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3. [출제의도] 발표를 들으며 작성한 메모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1'은 '유리를 통과하는 자외선이 있으니 실내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 경우도 있겠군.'이라고 하여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으며, '학생 2'는 'UVB는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니 실의 활동을 해야 비단 D 합성이 가능하겠군.'이라고 하여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③ '학생 1'과 '학생 2' 모두 발표 내용을 일상의 경험과 관련짓고 있지 않다. ④ '학생 1'과 '학생 2' 모두 예측한 발표 내용과 실제 발표 내용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4 [~ 7] 작문-화법 통합

4.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작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학생 2'가 작성한 건의문의 초고로, (가)에는 음향 신호기의 설치유을 높일 것, 고

장 난 음향 신호기를 수리해 줄 것, 점자 블록을 음향 신호기 바로 앞까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학생 2'는 (가)를 작성함으로써 시각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은 글쓴이의 요구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이루고자 의도한다는 내용의 ①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가)가 '시장님'이라는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은 맞지만, '시장님'이라는 독자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글은 아니므로 적절한 서술이 아니다. ③ 글쓴이의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 작품의 경우와 달리 (가)에는 글쓴이의 주관적 정서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현실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 행위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의견을 구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가)에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가)를 통해 작문이 자기 성찰을 위한 표현 행위라는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5. [출제의도] 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학생 3'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시각 장애인이 아닌 시민들도 시의 따뜻한 복지 행정을 실감하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내용은 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자 '학생 2'는 '하지만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음향 신호기가 설치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시의 따뜻한 복지 행정 서비스를 실감하게 될 테니 포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특정 내용을 삭제하자는 '학생 3'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후 '학생 3'과 '학생 1'도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학생 2'의 고쳐 쓰기 계획인 ㉞를 보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㉞는 적절한 고쳐 쓰기 계획이 아니다.

6. [출제의도] 회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전략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㉝의 발화에 앞서 '학생 1'은 '음향 신호기의 설치, 고장에 관한 문제 상황이 막연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㉞에서 '학생 3'은 '고장이 나서 불편했던 실제 사례들을 따로 조사해서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㉞은 상대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발화이지 상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발화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㉞에 구체적 사례라고 할 만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㉝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회의에 나타난 담화의 유형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그런데 독자를 고려해서 격식을 갖춰 글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한 의견을 수용하여 '그럼 건의의 목적을 밝히기에 앞서 인사말과 우리에 대한 소개를 추가하도록 할게.'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내 생각에는 고장이 나서 불편했던 실제 사례들을 따로 조사해서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한 의견에 대해 '그렇게 하면 글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질 것이라며 '학생 3'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8 ~ 10] 작문

8. [출제의도] 학생의 생각이 초고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다섯째 문단에는 자전거 동아리 '두 바퀴'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자전거를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동아리 가입에 필요한 주핵 실력은 제시되지 않았다.

9. [출제의도] 글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은 우리 학교 학생 중 자전거 이용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이기 때문에 ㄱ-1에서 자전거를 통학에 이용하는 41%는 우리 학교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 41%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전체 학생의 41% 정도'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넷째 문단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 대부분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안전수칙별 준수율을 조사한 자료인 ㄱ-2에 의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91%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헬멧 착용과 수신호 사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추어 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의 첫 번째 문장인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다 보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는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함께 느껴 봅시다'라는 청유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청유법을 사용하여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이 드러나지 않았다. ③, ④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을 언급하고 있으나 청유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 않다.

[11 ~ 15] 언어

11. [출제의도] 합성어의 형성과 그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건너뛰다’는 실제 동작의 순서인 ‘뛰어서 건너다’와 반대로 어근이 배열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집안(집+안)’은 ‘집의 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공동체.’로 쓰여 어근의 의미를 합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오답풀이] ④ ‘달아매다’는 실제 동작의 순서인 ‘매다’와 ‘달다’의 순서와 반대로 어근이 배열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이지만, ‘굴러가다’는 ‘어떤 곳을 굴러서 가다.’의 뜻으로 쓰여 어근의 의미를 합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합성어와 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새벽 하늘’과 같이 띄어 쓰더라도 ‘새벽하늘’과 의미가 다르게 쓰이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학생 5’의 의견은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③ 지문에서 ‘닭고기’와 ‘까마귀 고기’처럼 의미론적 유사성이 있더라도 합성어 인정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새벽하늘’과 ‘저녁 하늘’ 역시 ‘특정 시간대의 하늘’이라는 점에서 의미론적 관련성이 있지만 합성어 인정 여부는 다르다.

13. [출제의도] 국어사전의 정보를 통해 단어에 대해 적절하게 답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전 정보에 따르면, ‘걸다’이 ㉠의 의미를 지닐 경우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걸다’와 ‘걸다’가 모두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걸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걸-’로 바뀌고, ‘걸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걸-’으로 유지된다. ⑤ 국어사전에서는 동음이의어를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한다.

14. [출제의도] 음운 변동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압력도[압녁또]’에서는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었고, ‘ㄷ’이 ‘ㄸ’으로 교체되었다. ‘꽃잎이[꼴니피]’에서는 ‘ㅈ’이 ‘ㅉ’으로 교체된 뒤 첨가된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교체되었다. ‘국학문[구학문]’에서는 ‘ㄱ’이 ‘ㄹ’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교체되었다.

[오답풀이] ④ 모음 ‘ㅣ’로 인해 조음 위치가 바뀌는 음운 변동은 구개음화이다. ㉠에서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15. [출제의도]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쓰인 단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은 ‘위, 아래’의 대립이 없는 단어이므로

각각 ‘웃돈’, ‘웃어른’으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은 ‘아랫목’과 같은 단어를 통해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윗-’ 뒤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오지 않으므로 ‘윗목’으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은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단어이지만, 거센소리인 ‘트’ 앞에 ‘윗-’이 나타나므로 ‘위-’로 적어야 한다.

[16 ~ 21] 인문-예술 통합

16. [출제의도] 두 지문의 전개 방식에 대한 학습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 따르면 파노프스키의 도상 해석학이 작품의 내재적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작품에 시대정신으로서의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파노프스키의 도상 해석학은 상징 형식과 관련된 특정 이론이 맞다. 하지만 그것이 변용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도입 문단에는 예술 작품의 감상과 관련하여 카시러의 관점을 소개하며 예술 작품에 보편적인 내재적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② (나)의 도입 문단에서는 (가)에서 설명한 내재적 의미를 긍정함으로써 상징 형식을 차용한 파노프스키의 도상 해석학을 작품 해석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는 예술 작품의 감상이 주관적인 체험임에도 그 안에 담긴 내재적 의미에 대해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징 형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⑤ (가)는 카시러의 상징 형식을 통한 인식 방법을 밝히면서 그것을 통해 예술 작품의 감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나)는 상징 형식을 토대로 확립한 작품 해석 방법론인 파노프스키의 도상 해석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카시러에 따르면 작가가 지금껏 내밀한 감정만을 담고자 해도 작품은 내재적 의미를 갖는다. 예술가 역시 상징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 속 대상의 내재적 의미는 인간이 영위하고 있는 문화를 토대로 하여 상징 형식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인간은 세계를 직접 대면하는 대신에, 인간이 만들어 낸 언어, 신화적 상징, 예술적 이미지, 과학적 개념 등과 같은 상징적 매개물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③ 작품 해석의 방법론을 확립한 것은 카시러가 아니라 그의 철학적 입장을 수용하여 도상 해석학을 마련한 파노프스키이다. ④ 카시러에 따르면 상징 형식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다. 즉, 상징 형식은 여러 학제적 연구를 통한 종합적 직관의 발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파노프스키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⑤ 「최후의 만찬」에서 인물들의 표정을 통해서 자연적 의

미를, 얇은 순서를 통해서 관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상징적 가치를 구성하려면 이들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내재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18.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개념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상징 형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 매개물에 적용되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인간은 상징적 매개물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때 상징적 매개물에는 상징 형식이 적용된다. ② 각 분야에 적용되는 상징 형식은 조금씩 다른데, 과학적 상징 형식은 지성과 합리성에 의존한다. ③ 예술가 역시 상징 형식을 지니기 때문에 객관적 계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카시러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객관적 계기인 현실 문화에 발을 딛고 있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⑤ 예술 작품 속 대상의 내재적 의미는 상징 형식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인간은 상징 형식을 지니고 있어서 대상의 내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관점을 토대로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 따르면 창작 과정에 감정, 정서 같은 주관적 계기와 상징 형식 같은 객관적 계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카시러의 입장과 달리, 파노프스키의 도상 해석학은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계기를 간과하고 이성적인 분석에만 머물러 있다. 따라서 창작 과정에 주관적 계기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오답풀이] ① 상징적 가치를 찾으려는 것은 도상 해석학이 목표로 삼는 것이므로 도상 해석학에 대한 비판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다. ③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의미가 곧 작품에 담긴 시대정신이므로 이 두 가치를 별개로 보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당대의 집합적 예술 의지를 파악할 때 예술가의 의지를 넘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역시 도상 해석학의 입장이므로 비판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다. ⑤ 예술가가 객관적인 현실 문화에 발을 딛고 창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품의 고유한 의미인 세계관, 내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도상 해석학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역시 비판으로 부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 설명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에이크의 회화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에 대한 도상 해석학적 해석이 소개되어 있다. 자연적 의미와 관습적 의미, 그리고 이들을 넘어서 종합하는 내재적 의미에 관한 부분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답풀이] 작품에서 결혼이 영혼의 결합이라는 근원적 의미를 가짐을 확인하는 것은 도상 해석학의 단계에서 상징적 가치, 내재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여러 요소들의 의미를 종합한 결과인 것은 맞다. 다만 손을 잡는 의식이 부부간의 신의에 관한 약속임을 문헌을 통해 아는 것은 자연적 의미가 아니라 관습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해당한다. 작품의 자연적 의미는 묘사된 대상의 형태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이나 대상이 전하는 분위기를 통해 얻은 것들이다.

[오답풀이] ① 남녀가 손을 잡고 서 있다는 사실과 그 의식의 분위기에서 입속함을 파악하는 것은 자연적 의미의 파악에 해당한다. 도상 해석학은 자연적 의미 파악, 관습적 의미 파악 같은 도상학의 과정을 포괄한다. ② 작품의 배경이나 등장인물 등과 관련한 정보를 문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관습적 의미 파악에 해당한다. ③ 작품에서 세계관을 파악하는 것은 내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종합적 직관이 발휘될 때 예술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작품의 내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④ 작품에 등장하는 각종 물건이 결혼을 상징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작품이 종교적 배경을 지닌 결혼 증명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해석에 도달하는 것은 내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처럼 내재적 의미는 종합적 직관을 통해서만 도달될 수 있으며, 상징 형식으로 인해 누구나 내재적 의미에 공감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은 ‘공존’의 의미이다.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의미한다.

[22 ~ 26] 고전시가-수필 통합

→ 성삼문, 「이 몸이 죽어 가서 ~」 | 윤선도, 「어부사시사」 | 이양하, 「나무의 위」

22.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낙락장송’이 되어서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일 때(‘백설이 만견곤할 제’)라도 홀로 푸르름을 유지하겠다(‘독야청청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의 ‘낙락장송’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변해도 자신은 변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소재이다. (나)의 <동 8>에서 화자는, 물가에 홀로(‘외로운’) 서서 주변 사물과 달리 여전히 푸른색을 띠고 있는(‘혼자 어이 씩씩하고’) 한겨울 소나무를 보며 감탄한다(‘씩씩하고’는 설의적 표현으로서, ‘술’에 대한 감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세상을 가리운다’나 ‘진흙을 막는 도다’라는 표현을 통해 어지럽고 시끄러운 속세를 등지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는 중장과 중장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술’은 번잡한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한 화자가 지향하는 고결한 삶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낙락장송’과 ‘술’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표상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자의 정서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낙락장송’의 푸른빛은 흰 눈에 덮여 온통 하얗게 된 세상과의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독야청청하리라’는 의지를 부각한다. [A]에서는 ‘나무’를 ‘한때의 요염을 자랑하는 꽃’과 같은 다른 자연물이나 ‘하찮은 명리가 가슴을 죄고, 세상 해에포럼에 마음 흔들리는’ 사람들과 견증으로써 ‘나무’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의 ‘낙락장송’이 지조나 절개 같은 인간적 덕성을 상징하는 소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의인화되어 표현된 것은 아니므로 인격이 부여된 자연물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화자가 ‘낙락장송’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A]가 ‘접잡고 너그럽고 기록하기까지’ 하라며 ‘나무’에 인격을 부여하여, ‘하찮은 명리가 가슴을 죄고 세상 해에포럼에 마음 흔들리는 우리 사람은 이러한 나무 옆에 서면 참말 비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며 삶의 태도를 성찰하는 계기로 제시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보고 싶지 않은) 속세를 가려 주니 사납게 일어나는 구름을 한탄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세상을 가리는’ 것을 부정적인 결과라 할 수 없으며, 화자는 ‘머흔 구름’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풀이] ①, ② <운 5>는 봄날 강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느끼는 흥취를 노래한 연이다. ①은 봄날의 ‘고운’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강 물결을 반들반들한 ‘기름’에 빗대어 그 아름다움을 부각한 표현이고, ②은 ‘던져 두랏’, ‘놓을까’ 등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고기잡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표현한 구절이다. ③ <동 6>은 겨울날 저녁 무렵을 배경으로 한 연이다. 초장에서 새들도 등지로 돌아가는 시간임을 나타낸 뒤, 중장인 ㉔에서는 해가 저서(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두운데 저녁 눈은 자욱하게 내리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파랑성’은 파도 소리이고 ‘진흙’은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이므로, ㉔은 세속의 소리를 막아 주는 자연의 소리를 깨달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구절이다. 여기서 ‘파랑성’과 ‘진흙’은 각각 긍정적인 대상인 자연과 부정적인 대상인

세속을 표상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㉔은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과 세속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구분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외부 정보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을 참고할 때, ㉔의 ‘오강’은 오나라의 강을 말하고, ‘천년 노도’는 오자서의 시신을 강물에 던졌을 때 일어난 성난 물결을 환기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슬플로다(슬프리로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오나라 왕이 아니라 오자서이다. 화자가 오나라 왕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병자호란을 겪은 왕에 대한 연민과도 무관하다.

[오답풀이] ㉔은 <운 5>의 초장과 중장에서 아름다운 강에서 낚시질하는 삶, 즉 은거 생활의 일면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화자는 굴원의 「어부사」에 나오는 ‘탁영가(강물이 맑으면 갯근을 씻는다는 구절이 담긴 노래)’를 언급하며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의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보기> ㉔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탁영가’의 ‘강물이 맑으면 갯근을 씻는다’는 구절은 공명한 세상에서 관직에 나아가 정치적 이상을 펼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화자는 물 맑은 자연에서 낚시질을 즐기는 은거 생활에서 ‘탁영가’를 즐기고 있으므로, 화자의 상황이 ‘탁영가’에 대한 해석과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㉔에서 설명한 「어부사」 속 어부의 노래는, 운 좋게 공명정대한 시대를 만난다면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만일 혼탁한 세상을 만난다 해도 그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차용한 ㉔의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다(씻은들) 어떡하리’라는 구절의 ‘물결이 흐리거든’은 화자가 혼탁한 세상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㉔의 설명을 참고하면, ㉔에서 언급한 ‘조강’은 초나라의 강을, ‘어부 충혼’은 그 강물에 투신하여 죽은 굴원을 환기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즉 화자는 강에서 죽은 굴원의 혼을 ‘남을세라(남을가 두러워. 여기의 ‘-을세라’는 염려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초강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충신이었던 굴원에 대한 공경과 애도를 통해 자신의 충심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㉔의 ‘아암지’에 대한 언급은 ㉔에서 설명한 당나라 이소의 고사를 차용한 것이다. 겨울날 눈 내리는 저녁(‘보설이 자욱하다’)에 화자는 당나라 이소가 눈 내리는 밤에 아암지의 오리 떼를 이용해 적을 친 고사를 떠올리면서 ‘초목참’, 즉 병자호란으로 인한 나라의 수치를 ‘뉘’가 ‘씻을’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병자호란으로 인한 나라의 수치를 씻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장미의 계절'이 지난 것(지문의 첫 문단과 결부해 보면, 세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가 진술하고 있는 '이때'가 '잊어됨'임을 알 수 있다. 즉 장미가 피는 계절이 지난 것이다.)과 '노령(= 늙은 나이.)도 머지않'은 자신의 처지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정복'은 딸의 나무와 함께 여생을 보내는 일을 가리키며, 그것보다 '더 큰 정복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은 그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행복할 것이라는 뜻으로서, 자신의 여생을 나무와 함께 보내고 싶다는 염원의 표현일 뿐, 이제 더 이상의 '정복'을 누릴 시간이 없다는 안타까움과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③ '알집 개종나무'는 '어느 모로 보나 대인군자의 품모'라고 하면서, '바람 자면 고요히 깊은 명상에 잠기고, 잔바람 일면 명상에서 깨어 일새 나뭇거리며 끊임없이 미소 짓고, 바람이 조금 세차면 가지가지를 너울거리며 온 나무가 춤이 된다.'라고 진술한 부분에서 글쓴이가 '알집 개종나무'를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7 ~ 31] 사회

27.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기사형 광고가 전통적인 형태의 지면 광고에 비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는 한편 기사형 광고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지문은 기사형 광고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국내외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가 없다. ③ 지문은 기사형 광고가 홍보할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다. ④ 지문은 독자의 광고 인식 정도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을 고찰하고 있지 않다. ⑤ 지문은 기사형 광고와 전통적인 광고의 게재 비용이나 그 비용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적이 없다.

28.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3자 보증 효과'는 신문 기사를 읽어 온 독자들에게 누적된 신문사 편집진에 대한 신뢰감이 기사 형태의 광고에 전이되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광고 형태보다 기사형 광고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사람들은 정보의 내용보다 정보의 출처를 더 빨리 믿는, '가수면 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③ 전통적으로 신문에 실린 지면 광고는 신문의 기사에 비해 독자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④ 설득의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에 대한 의도가 드러나면 심리적 거부감이 나타나서 설득의 효과는 경감되는 측면이 있다. ⑤ 신문 진흥법 이전의 신문법에는 파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신문 진흥법에는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9.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내용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사형 광고는 전통적인 광고보다 정보의 양이 많다. 하지만 그로부터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기사형 광고의 윤리적 문제는 그것이 기사 형태를 취한다는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기사형 광고에 실리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는 것은 기사형 광고가 지닌 윤리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 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기사형 광고는 '광고'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그것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③ 현재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 파태료나 시청 명령 등의 처벌 규정이 없어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없지만, 시청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감독 기관에 부여된다면 이러한 처벌 규정을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④ 기사형 광고는 '취재', '편집자 주'와 같이 기사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기사형 광고는 글자체나 글자 크기 등을 형태적으로 기사와 유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특정 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기사형 광고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표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사형 광고의 홍보 효과가 높아졌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정보원에 대한 것은 기억에서 쉽게 소멸되는 반면 정보의 내용 자체는 뇌리에 남는 효과인 '가수면 효과'는 독자가 기사형 광고를 보고 광고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효과이다. 따라서 광고임을 알리는 표시로 인해 '가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어 X 신문의 홍보 효과가 Y 신문보다 더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현행 신문 진흥법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독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이므로 불법에 해당한다. 다만 처벌 조항이 없을 뿐이다. ② 기사형 광고를 처음 접한 독자들은 광고임을 명시되어 있어도 기사형 광고에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③ 항의 전화는 해당 광고가 기만임을 인지한 독자에게 의한 것이다. 이러한 독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광고주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④ 신문의 신뢰도가 광고로 전이되는 효과는 독자가 광고임을 어느 정도 자각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

3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의 '피는(피다)'은 '생각, 감정, 기세 따위를 엄매임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주장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와 문맥상 가장 가까운 것은 ②이다.

[32 ~ 34] 고전소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3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관들이 용녀를 불러내어 초현실적인 능력과 관련된 물건들을 빌려준 것일 뿐 용녀가 옥황상제에게 그것을 청한 것은 아니다. 빌려준 대상도 막 씨가 아니라 용녀이다.

[오답풀이] ① 막 씨의 남편 김삼량은 '얼굴이 곱지 못'한 아내 막 씨를 버리고 '조씨 여자를 취하여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막 씨는 '조금도 서러워하는 일이 없이' '시모(=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② 선관들은 남편이 '난중에 죽'은 막 씨의 상황,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용녀의 상황 등 양측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용녀를 막 씨의 자식으로 점지하였다. ④ '십육 년 후에 얼굴을 볼 것이니~ 후일 의심이 없게 하라'라는 선관의 말에서 먼 훗날의 일을 대비하여 용녀의 모습을 막 씨에게 미리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작품의 전체 줄거리로 볼 때, 이는 용녀가 금방울로 태어나 16년 후에 여인으로 변신하게 되는 사건에 대비하는 조치이다. ⑤ 막 씨는 자신의 몸에서 금방울이 태어나자 '대경(= 크게 놀람.)하여 괴이히 여기며' 깨뜨리려 하거나 '멀리' 내다 '버리'려 하였다.

33. [출제의도] 작중 인물들의 대화 양상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막 씨는 '의심컨대 살아 서로 봄이나, '어찌 깊은 밤에 거취 분명치 아니하뇨?'라며 상대의 생사에 의구심(=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삼량은 '그대를 박대한 죄로', '저승에 가도 또한 죄인이라' 등의 말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막 씨가 운명을 탓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삼량은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② 막 씨와 삼량이 저승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서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③ 막 씨가 삼량에게 '의심컨대 살아 서로 봄이나' 등을 묻는 것에는 경계의 태도가 나타나 있지만, 삼량은 막 씨에게 운명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제사 지내 준 것에 감사하고자 한다. ⑤ 삼량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삼량이 자신에게 닥쳐올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관들이 막 씨의 꿈에 나타나 '들으매 그대의 장부 난중에 죽었다 하는지라'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선관들은 삼량이 죽고 난 후 그 소식을 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관들이 삼량에게 죽음에 대해 경고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는 이 작품에 당대 사회가 지향하는 유교적 윤리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옥황상제가 막 씨에게 '큰 절개'와 '지극한 효성'을 명분으로 표창하고자 하는 것은 정절과 효라는 유교적 윤리를 권장하는 당대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삼랑이 살아서 저지른 죄의 벌이 사후 세계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현실 세계와 비현실적 세계가 도덕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살아 있는 사람인 막 씨가 귀신이 된 남편과 결합하여 금방울을 낳는 것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환상성을 가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하늘의 선관들이 인간 막 씨에게 점지하여 금방울이 태어나도록 한 것은 천상계의 초월적 존재들이 지상의 현실 세계에 개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5 ~ 37] 현대시

→ 김현승, 「눈물」 |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35. [출제의도] 두 시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제2연과 제4연에서 '오직 이뿐'을 반복함으로써 중심 대상인 '눈물'에 시상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나)에서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를 반복하는 시행을 잇달아 배열하며 시상을 옆으로 쏘아 중심 대상인 '고양이'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오답풀이] ④ (가)와 (나) 모두에서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시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따르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에는 자신의 슬픔을 내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줄 '당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새로이'는 절대자의 섭리 안에서 자신이 슬픔을 통해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이지, 슬픔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눈물」은 시인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 믿음으로 견디면서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시인은 '눈물'이 '육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기를 바란다고 함으로써, '눈물'이 환기하는 슬픔이 부정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내적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나아가 꽃이 시들면 열매가 맺히도록 한 신의 섭리와도 마찬가지로 '눈물' 즉 슬픔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 준 가장 소중한 은총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오답풀이] ① 시의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제1연은, 더러는 (눈물)이 비옥한 토지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슬픔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작은 생명'이 떨어져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육토(=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땅.)', 슬픔을 내적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영혼의 바탕, 또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은, 제재인 '눈물'의 형상을 사물의 상태처럼 표현한 것으로서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이러한 '눈물'을 '나의 전체'라고 표현한 것에서, 자신의 내면이 슬픔을 통해 흙도 티도 없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③ '드리라 하울'을 보면 화자에게 '당신'은 받들어야 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당신'께 '더욱' 가지 있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화자가 '눈물'을 '나의 가장 나아줄 지니인 것'으로 표현한 것은, '눈물'이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④ '꽃'이 떨어지고 난 뒤 '열매'가 맺히는 자연 현상에서 화자는 '당신'이 주재하는 섭리를 발견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섭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닥친 슬픔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 즉 '꽃이 시드는 것에서 '열매'를 기약할 수 있듯이, 화자는 자신의 '눈물' 역시 성숙을 가져다줄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37. [출제의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너른 벌판'에서 다른 존재들과 어울리며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찾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으로 보아, '벌판'의 넓은 이미지는 자유로운 삶을 구현하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뿔마루에서 즐지 않으리라'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뿔마루'를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고로,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고양이로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생명력 넘치는 야생의 삶을 살아가려는 고양이를 통해, 고독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력을 발산하며 자유롭게 살아가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고양이' 털의 윤기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을 환기한다. 화자는 윤기가 흐르는 고양이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풍부한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드러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아하하하'는 달아나는 참새 떼를 보며 내지르는 웃음소리, 사냥을 통해 자신의 생명력을 한껏 발휘하는 데서 오는 고양이의 즐거움을 담고 있다. 또한 참새 떼를 '폴짝폴짝' 뒤따르는 행위에는 사냥을 놀이에 가까운 동작으로 여기는 인식이 담겨 있다. 화자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생명력의 자유로운 발산이 삶의 기쁨일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해는 기울어'라는 표현이 환기하는 하강의 이미지가 '스산'한 '바람'의 촉각적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울썸썸스러운 풍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돌아갈 집도 없이 홀로 된 존재가 감지하는 세계의 풍경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마주

하게 되리라 예상하는 고단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누군가의 보살핌에 길들여진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이는 이 작품이 가진 핵심적인 주제로서, 스스로의 온전한 생명력으로 세계와 대면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⑤ '내 잠자리'는 화자가 안락한 삶('뿔마루'에서의 죽음과 '사기그릇'의 '우유'로 표상되는 삶)을 사는 대신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꾸기 위해 선택한 장소이다. 이 장소의 이미지는 '훈훈'한 '질남 녀새'와 '은은'한 '달빛'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내 잠자리'가 표상하는 주체적인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8 ~ 41] 과학

38. [출제의도]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각이 마그마 분출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은 설명하고 있으나 지각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자기장을 제거하고 나면 상자성 상태의 입자는 자기장을 따라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자화 현상이 사라짐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대양저에 검은색과 흰색을 띤 줄무늬가 형성되는 이유는 지각이 역전 현상에 있음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열 잔류 자기의 방향을 통해 암석이 형성된 지기가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열 잔류 자기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자기 북극과 자기 남극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지자기 역전 현상이 실제로 일어남을 보여 준다는 것을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대양저에서의 해저 확산 현상은 판의 이동에 따라 대륙이 이동한다는 판 구조론의 근거가 되었음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암석을 쿨리 온도 이상의 액체 상태로 만들면 상자성 상태가 된다. 이때 자화 방향이 변동될 수 있긴 하지만 지구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므로 쌍극자는 당시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 정렬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대양저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대양저 산맥 중심부의 움푹 파인 열곡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다. ② 지리상의 북극인 진북과 지구 자기장의 자기 북극인 자북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자북보다 더 북쪽의 진북에 서 있을 때에 남침반은 자북을 가리킬 것이므로 그 바늘이 남쪽을 향할 수도 있다. ③ 열곡은 대양저 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이곳을 따라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그로 인해 대양저가 확장되면 판들이 서서히 이동한다. ⑤ 주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화가 사라지는 성질인 상자성과 달리, 강

자성을 띤 암석은 주변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화 상태를 고스란히 보존한다.

40.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열 잔류 자기’는 쿨리 온도 이하에서 강자성이 나타나서 자화 상태가 그대로 남은 암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열 잔류 자기는 쿨리 온도 이상으로 다시 가열하지 않는 한 영구히 보존된다.

[오답풀이] ② 한번 형성된 열 잔류 자기라 하더라도 쿨리 온도 이상으로 열을 가하면 보존되지 않고 사라진다. ③ 열 잔류 자기는 강자성이 아니라 상자성을 띤 상태에서 형성된 쌍극자들의 정렬이 암석에 남아 있는 것이다. ④ 마그마가 분출되어 식는 상황이라면 지자기 역전 현상과 무관하게 항상 줄무늬 형성에 기여한다. 다만 지자기 역전 현상에 따라 줄무늬의 색이 달라질 뿐이다. ⑤ 정렬되어 있는 방향은 당시의 암석의 온도 정보와 관련이 없다. 정렬되어 있는 방향을 통해서만 자북의 방향 등을 알 수 있다.

41. [출제의도]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과학자 값이 정리한 자료들을 통해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겠다. 지문에서는 해저의 확장 속도, 암석의 복각에 따른 암석의 위치, 암석의 색깔에 따른 시기 추정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가)는 4백만 년 전에 형성된 띠의 폭에 관한 정보이다. 같은 시대에 형성된 띠들의 폭을 그 시대의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각각의 해저가 연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정보는 (나)의 정보와 함께 활용하면 해저 확장 속도라는 정보를 알아내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다)는 암석의 복각에 관한 정보인데, 암석의 복각은 암석이 위치한 위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라)의 정보는 암석의 띠의 색깔에 관한 정보이다. 띠의 색깔이 어떠한가에 따라 암석이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중에 언제 형성된 것인지를 여부를 알 수 있다.

[정답풀이] 암석이 흰색을 띠고 있을 때에는 역자극기에 해당한다. 현재와 같은 정자극기일 때는 자기 북극인 자북이 지리상의 북극 방향에 있다. 나침반 바늘은 쌍극자의 N극과 마찬가지로 N극을 띠고 있어서 항상 S극 방향을 향하는데, 정자극기에는 지리상의 북극 방향을 향한다. 그러나 자기 북극과 자기 남극이 뒤집히는 역자극기에는 나침반 바늘이 정자극기와는 반대로 지리상의 남극 방향을 향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띠의 폭으로 보아 A의 확장 속도가 더 빠르다. A는 연간 4cm(8km/20만년=4cm/년), B는 연간 2cm(4km/20만년=2cm/년) 확장되어 왔다. 다만 이는 (가)만으로 알 수 없고 (가)와 (나)를 종합해야 알 수 있다. ② 암석의 복각이 클수록 고위도에 위치

한다. 따라서 복각이 더 큰 A의 위치가 더 고위도일 것이다. ④ 띠의 폭과 형성 기간만으로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를 알 수는 없다. 띠의 색깔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이를 알아낼 수 있다. ⑤ A와 B에서 띠의 폭이 달리 나타났다는 것은 각각의 대양지에서 지각이 확장되는 속도가 달라졌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그로부터 지자기 역전 현상의 주기가 불규칙함을 알 수는 없다. 또한 복각은 해당 암석이 위치한 위도를 보여 줄 뿐이지 지자기 역전 현상의 주기와는 관련이 없다.

[42 ~ 45] 현대소설

→ 최인훈, 「광장」

4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명준은 ‘늦지 말고 알려야 할 성질’의 ‘보고서’를 본부에 전달하지 않고 손에 든 채 은혜를 만났고, 은혜는 ‘흰 쇠붙이’, 즉 수술용 가위를 손에 든 채 명준을 만났다. 명준은 은혜의 손에 들린 가위를 ‘부신 듯 바라보’는데, 이에 대해 서술자는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이 ‘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명준은 자신이 전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준이 전황 보고를 게을리한 탓에 북한군이 패배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북한군 패배 이후에 명준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도 않다.

[오답풀이] ② ‘전세는 나날이 못해지고 있었다. 항공기의 도움을 받지 못한 공산군은 조그만 곳을 지켜 내기 위해서도 된 값을 치렀다.’라는 서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명준에게서 총공격이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서 은혜는 ‘죽기 전에 부지런히 만나요’라고 말한다. 이 말을 통해 은혜가 명준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총공격 전 공산군의 모든 화기가 전선의 ‘앞쪽으로’ 배치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을 덮고 나타난 유엔 공군의 폭격기가 ‘고맙게도 모여 준 공산군의 화기와 병력을 갈겨 댔고’, ‘낙동강에 물이 아니라 피가 흘렀다’는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범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범표로 구분되는 각각의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A]에서는 낙동강 전투가 전개되는 양상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범표의 잦은 사용으로 그 전개 양상 하나하나에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다.

[오답풀이] ③ [A]에 ‘까맣게 하늘을 덮고’와 같은 감각적 표현은 나타나지만,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44. [출제의도] 특정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맛으로 지쳐 빠진 몸’이란, 명준이 기존의 남북한 현실에서 환멸을 느끼고 지쳐 버렸다는 뜻이다. 때문에 명준은 아무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중립국으로 가서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며 쉬’는 삶을 살아 보려고 하는 것이다. ㉞은 그런 삶이 가능한 곳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삶에서 겪게 될 의로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명준과 은혜가 하나씩 들고 있는 ‘죄의 증거’란 ‘가위’와 ‘보고서’이다. 이는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직무를 상징하는데, 이들은 그 직무를 소홀히 한 채 만남을 이어 가고 있고, ㉞은 명준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② ㉞의 바로 앞 문장 ‘의로 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와 ㉞의 바로 다음 문장 ‘응급 처치에도 모자랄 거리(재료)를 가지고는, 군의관이라고 별 재주가 있을 턱이 없었다.’로 보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뚝대’는 배 바닥에 세운 기둥으로서, 배는 여기에 돛을 매어서 바람을 받아 앞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뚝대’가 부러지면 배는 추진력을 잃게 된다. ④ ㉞이 포함된 문단에서 명준은 자신의 처지를 배를 타고 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명준 배나 ‘섬에 닿기를 바라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㉞의 ‘난파관’과 ‘항구’ 역시 배와 관련된 어휘인데,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했다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삶의 지향을 잊기로 했음을 뜻한다. 그러고는 ‘물결 따라 나선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에 자신을 맡겨 보겠다는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삶의 힘을 잃는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명준이 미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명준이 ‘이루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④ 명준은 중립국으로 가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겠다는 식의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자연적인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며 쉬기 위해 간다고 하는데, 이는 그의 중립국행 결정이 남북한 현실에서 맞은 환멸과 사랑에 걸었던 희망의 상실, 그에 따른 현실에 대한 체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